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어깨동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장애를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양성을 인정하며 존중과 배려의 인성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EBS 땡땡땡 유치원 - 별이 이야기

유치원에서 새 친구 '별이'를 만난 어린이들이 어리둥절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별이 때문이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별이는 친구들을 발견하고 그제야 "안녕?"하며 손을 흔든다. 한국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44년 전통의 어린이프로그램(EBS 땡땡땡 유치원)에 자폐 스펙트럼 어린이 별이가 데뷔했다. '땡땡땡 유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을 보여준다.

2016년, 미국의 55년 전통의 어린이 프로그램 PBS '세서미 스트리트'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캐릭터 줄리아가 첫 등장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3년, EBS '땡땡땡 유치원'은 한국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캐릭터를 등장시켰다.

EBS 땡땡땡 유치원,
'자폐스펙트럼장애아동' 별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벌써 친구가 될 준비가 된거야' - 통합교육의 가치를 전하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상태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지연을 특징으로 하는 전반적인 발달장애를 말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캐릭터 별이는 몸이나 팔을 흔드는 상동행동을 보이고, 소음에 민감하며, 자동차 장난감을 유난히 좋아하는 등 같은 장애가 있는 이들이 흔히 보이는 특징이 있다. 별이는 잔뜩 놓인 탈 것 장난감을 보고 어려운 이름까지 척척 맞히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자동차 경적 등 소음과 빛이 주는 자극에 예민하다. '땡땡땡 유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을 보여준다. '땡땡땡'은 "별이는 우리랑 똑같은 점도 있지만 별이만의 생각이 있어. 우리 모두 누구나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것처럼"이라고 일러준다. '땡땡땡 유치원'은 별이를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되 '별이의 생각을 알고, 또 이해한다면 우리는 벌써 친구가 될 준비가 된 거야!'라고 말하며, '통합교육'의 가치를 강조한다.



EBS 땡땡땡 유치원

이라고 일러준다. '땡땡땡 유치원'은 별이를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되 '별이의 생각을 알고, 또 이해한다면 우리는 벌써 친구가 될 준비가 된 거야!'라고 말하며, '통합교육'의 가치를 강조한다.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얼마 전, 제 짝꿍이 전학을 가서
옆 자리가 비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제 옆자리에
J를 앉히려는 거 있죠?

자폐성 장애를 가진 J를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안돼!!!
싫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저는 제 옆 자리가 비었을 때

안녕!

안녕!

안녕!

예쁘고 잘생긴 애가
전학오길 기대했거든요.

공부까지 잘 하면 금상첨화죠!

우와!

이런 이럴까

저건 저렇게!

그런데 졸지에 장애인 짝꿍이라니,
말이 되나요?!

너!!
여기 앉을
생각 마!!

우리 반 애들은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J에게
그럴 수 있어?!!

상처를 줬어

넌
이기적이야

하지만 제가 뭘 잘못했죠?

전 그냥 멋지고 똑똑한 짝을
원했을 뿐이에요.

우리 동네 어른들이 원했던 것 처럼 말이에요.

아니, 누가
특수학교가 싫대요?!!

반대!!
반대!!

병원을 지어달라는
거잖아요!!!

어린이는
어른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글, 그림 : 오토리